



夜하다, 장미
23일 밤 광주시청 옆 장미공원이 불을 밝혔다. 시민들이 만개한 장미 사이로 산책을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무연고 이웃 마지막 길 주민들이 배웅

광주 산수동 '장례추진위' 60대 남성 장례식 치러

60대 무연고 남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주민들이 배웅을 했다.

23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산수1동장과 주민으로 구성된 '산수1동 장례추진위원회'는 쓸쓸하게 세상을 등진 무연고자 김모(68)씨의 공영 장례를 지난 20일 치렀다.

무연고자는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을 말한다.

김씨의 장례식에는 산수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 등 마을 주민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3일장을 치른 뒤 지난 20일 오전 발인까지 함께 했다.

고인인 김씨는 10여 년째 홀로 살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술에 의지할 날이 많았던 김씨는 지난 2020년께 모친을 여의고 술에 더욱 의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있는 산수공원에서

에서 지인들과 매일 만나면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지난 2일 "매일 나오던 공원에 안보여 집에 갔더니 숨겨있었다"고 신고를 해 김씨의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동구 복지담당 관계자는 "김씨가 주말사이 집에서 홀로 사망했고 2일 후에 발견 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최미숙 산수1동장은 "공원에서 매일 술을 드셨던 모습만 떠올랐는데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돈된 집 안을 둘러보고 고인의 마지막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는지 마음이 착잡했다"면서 "무연고자 이웃의 마지막길 배웅은 우리 공동체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무연고자 공영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반려동물 ‘원정 장례’ 더 슬퍼요”

'반려동물 50만마리' 광주·전남, 장례시설은 2곳 불과 주민들 혐오시설 반대...공·사립 동물장묘시설 설립 난항

광주시 동구에 사는 정모씨는 최근 7년을 키우던 노랑색 줄무늬 코리안 쇼트헤어(한국의 토착 고양이)인 고양이 '도담'이 떠났다. 정씨는 7년 동안 가족처럼 동고동락하던 고양이의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당장 광주에서 화장할 수 있는 장묘시설이 없어 애를 태웠다. 이리 저리 알아보면 차에 전복의 한 지역에 있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연락을 했지만, 예약이 꽉차 있어 밤 9시에야 겨우 예약을 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최근 광주에서도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반려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란 이름이 무색하게도 광주 지역에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합평, 여수, 전북 임실 등으로 '원정 장례'를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37만명, 반려동물 개·고양이는 49만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늘어나는 반려인구에 비해 장례시설은 턱없이 모자란 상태다. 전국 반려동물 장례시설 65개소 중 광주·전남 지역에는 단 3개소만 등록돼 있다.

광주 광산구에도 민간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있었으나, 2년여 전부터 기약없는 휴업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화장·건조장 등 시설이 없고 장례식 서비스만 제공했으며, 수익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광주 반려인들은 가까운 합평 'T' 반려동물 장례문화원'과 여수 'P 메모리얼파크'로 먼 길을 떠나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는 광주·전남 곳곳의 반려인들이 몰려들어 한 달 평균 50~90여차례 장례식이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선 반려동물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광주에도 장례시설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버리거나 동물병원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반려동물을 '쓰레기' 취급하듯 버리는 데 거부감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장례시설 요구에 발맞춰 화장장, 봉안당(납골당), 장례시설을 포함한 공립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은 안갯속이다.

시는 지난 2020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립 동물장묘시설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계획은 당장 부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당초 광주시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내 남부지에 동물장묘시설을 설립하려 했으나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영락공원은 사람 묻는 곳이지, 동물을 묻는 곳이 아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한 휴업 중인 광주시 광산구의 한 반려동물 장례시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9년에는 광산구의 한 상조회사가 산도동에 화장장을 포함한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만들고자 했지만,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빚발쳤고 결국 설립이 무산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는 땅값이 높게데다 화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도 복잡하고, 주민 반대가 거세서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들어서기 쉽지 않다"며 "당장은 영락공원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부지 선정을 마무리한 뒤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고 밝혔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 예비군 훈련 2년만에 재개

내달 21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2년 동안 '일시정지'됐던 예비군 동원훈련이 다음달 20일부터 재개된다.

병무청은 2022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 6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전남에서도 표준 훈련장인 광주시 광산구 내산동 삼도동원훈련장을 비롯해 곳곳의 훈련장이 문을 열 예정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부대 사정에 따라 21일부터 첫 훈련 일정이 시작된다.

소집 대상은 1~6년차 장교·부사관과 1~4년 차 병사로, 광주·전남에서는 2만 5000여명이 동원될 계획이다.

올해는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2박 3일이 아닌 소집훈련 8시간,

원격교육 8시간으로 축소된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입영 시간은 육군 오전 9시, 해·공군 오전 10시다. 퇴소 시간은 오후 6시이며 소집 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오후 5시에 퇴소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예비군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대 6시간까지 소집훈련 시간에서 차감해 조기 퇴소할 수 있다.

입영 통지서는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모바일 앱·이메일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심증상자는 연기처리 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학기 국가장학금 내달 23일까지 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정부가 나누는 총 11개 가구소득 구간 중 기초생활수급자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지원 대상이다.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범위 안에서 유형과 형제·자매 수에 따라 연간 350만원~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I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소득 9구간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6월 27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599-2000)나 재단 지역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든든한 실손의료보험! **지키자**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